

일상에서의 체념적 성찰

- 황지우의 <심인>과 <새들도 세상을 떠나는구나> 작품 해석 -

작성자 : 99105-024 독문과 장기정

제출일 : 2004년 6월 21일

[목차]

1. 서론
2. <심인> 해석
 - 2.1. 2단계 구성과 '신문'
 - 2.2. '나'가 느끼는 이질감
 - 2.3. 초라한 '나'의 모습
 - 2.4. 소결
3.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해석
 - 3.1. 3단계 구성
 - 3.2. '애국가'와 시적화자의 상상의 세계
 - 3.3. 대립구도를 이루는 어휘소
 - 3.3.1. '이 세상'과 '이 세상 밖'
 - 3.3.2. '날아간다'와 '주저앉는다'
 - 3.4. 소결
4. 결론

1. 서론

이 글은 황지우의 첫 시집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1983)에 실린 시 두 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심인>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두 작품을 해석하고 황지우의 시세계의 특징을 단편적으로나마 규정하고자 한다. 시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에는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 구조주의 문예학 이론도 부분적으로 차용하면서 작가의 성향도 고려할 것이다. 시 두 편을 각각 분석하고 소결을 지은 뒤 두 시의 해석상의 공통점을 통해 황지우의 시세계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2. <심인> 해석

심인

김종수 80 5!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 3! 입대 영장 나왔음
귀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혜 21 |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누다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1983)-

2.1. 2단계 구성과 ‘신문’

심인은 사람 찾는 광고로 이루어진 1~3연과 시적화자의 독백인 4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3연은 신문에 실리는 사람을 찾는 광고의 형식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마치 신문의 일부를 오려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시는 1연부터 3연까지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다가 4연에서 ‘나’라는 시적화자가 개입하며 독백의 형식으로 바뀐다. 내용에 있어서도 1~3연이 사람을 찾는 내용이라면 4연에서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 튀어나온다. 1~3연에서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유지되어온 일관성은 4연에서 비약적으로 파괴되어 두 부분은 극히 이질적인 느낌을 주며 분리된다.

이질적인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인접성은 ‘신문’이다. 1~3연은 신문에 실리는 사람을 찾는 광고란의 일부이다. 신문의 일부를 그대로 시에 옮겨놓았다. 4연에서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누’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신문을 본다는 사실에 착안을 하면 1~3연과 4연은 ‘신문’과의 인접성에 의해 결합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화장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고, 신문에 실린 1~3연의 사람 찾는 광고를 보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신문’이라는 인접성에 의해 화장실에서 사람 찾는 광고를 보고 있다고 떠올려 봄으로써 이질적으로 보이는 1~3연과 4연을 하나의 작품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감상할 수 있다.

2.2. ‘나’가 느끼는 이질감

작품 내에서 구분되는 두 부분이 일으키는 이질적 느낌은 시적 화자가 느끼는 느낌 자체이다. 1~3연의 내용들은 모두 사람을 찾으며 기다리는 애절한 사연들이다. 각 광고마다 광고를 실은 사람들의 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입대 영장’이나 ‘위독’하신 ‘어머니’는 상황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준다.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는 표현과 ‘내가 잘못했다’는 표현은 찾고 있는 이를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설득의 표현들이다. 1~3연에서는 ‘기다림’이라는 의소(Sem)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1~3연의 분류소(Klassem)는 ‘기다림’이다. 광고를 낸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선택한 몇 개의 단어들은 상황의 절박함을 표현하며 기다림의 감정을 배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신문 속에서 ‘기다림’을 읽어내고 있는 시적 화자의 현재의 상태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누’고 있는 상태이다. 누군가가 애타게 자신의 가족을 찾고 있는 상황과 자신의 상황은 완전히 무관하다.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1~3연과 4연의 이질감은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의 이질감과 일치한다.

2.3. 초라한 ‘나’의 모습

두 가지 다른 상황의 이질감은 4연에서 그/그녀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감과 초라함으로 이어진다. 대개의 경우 신문에서 눈길을 끌지 못하는, 그냥 지나치는 부분인 사람 찾는 광고란에서 이질감을 발견함으로써 광고란은 시적 화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된다. 사람 찾는 광고는 시적 화자로 하여금 현재의 무기력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4연에서 시적 화자의 현재의 모습은 배설을 하고 있는 모습,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이다. ‘쭈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는 현실 앞에 당당하거나 도전하는 자세가 아니라 현실에 위축되고 움크린 자신감 없는 모습이므로, 이런 표현도 초라한 모습을 부각시키는 요소가 된다.

사람 찾는 광고란이 시적 화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출’을 해서 ‘소식이 두절’된 시기가 ‘80년 5월’이다. 5·18 광주 민중 항쟁이 있었던 시기이다. 황지우 시인이 5·18 광주 민중 항쟁을 다룬 <화엄광주>라는 시를 짓기도 했음을 고려할 때 ‘80년 5월’이라는 시기는 5·18과 관련된 시기라고 보는 것이 옳다. 가출 시기가 5·18임을 보고 시적 화자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사람 찾는 광고란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입대를 앞둔 나이의 남성이라면, 불심검문에서 무차별적으로 잡혀갔던 젊은이들 중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죽음을 당했거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가능하다. 시적 화자에게는 사람을 찾는 광고가 아직 끝나지 않은 5·18의 상처 자국으로 보였을 것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 광고를 통해 보며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 성찰하게 된 것이다.

2.4. 소결

황지우의 <심인>은 사람 찾는 광고란과 시적화자의 독백으로 나누어진다.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나’의 심리 상태를 추론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누어진 두 부분의 이질성이다. 1연부터 3연까지 이어지던 흐름이 어색하고 낯선 4연의 등장으로 끊기고 둘 사이에는 긴장감이 형성된다. 이 이질성은 신문을 통해 광고를 보고 있는 시적 화자가 발견한 텍스트와 자신 사이의 관계의 낯설음을 느끼는 감정 상태를 암시한다. 특히 ‘80년 5월’이라는 시기는 낯설게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낯설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게 하고, ‘나’의 초라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이 시는 현실 속의 자신의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성찰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3.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해석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映畵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群 衆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깎깎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깎깎대면서
갈죽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 『 』 (1983)-

3.1. 삼단계 구성

작품은 극장에 간 ‘우리’가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애국가의 연속되는 두 끝 소절인 ‘삼천리 화려강산’과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사이에 시적 화자의 상상이 펼쳐지고 애국가가 끝난 뒤 자리에 다시 앉으며 시는 끝이 난다. 작품은 세 부분, 즉 애국가가 시작되기 전(1/2행)과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상상하는 부분(3~18행), 애국가가 끝난 후(19/20행)로 나누어진다. 두 번째 부분은 다시 날아가는 새들에 대한 묘사 부분(3~10행)과 시적화자의 소망을 담은 부분(11~18행)으로 나누어진다.

3.2. ‘애국가’와 시적 화자의 상상 세계

이 시에서 애국가의 가사 내용은 상상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과 절묘하게 연결된다. 애국가에서 ‘삼천리 화려 강산’이라는 부분은 한국이라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데, 애국가와 함께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 속에서 새들이 날아가는 장면과 결합된다.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가 결합되어 시적 화자에게는 새들이 ‘삼천리 화려 강산’을 떠나는 것으로 인식된다. 영상 속에서 그냥 날아가고 있을 뿐인 새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결과 ‘새들도 세상을 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애국가의 마지막 소절인 ‘대한 사람 대한으로/길이 보전하세’는 애국가가 끝났음을 의미하므로 시적 화자는 상상을 끝내고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 가사는 애국가의 마지막 부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시적 화자가 ‘자리에 앉’는 것과 유사성이 있다. 시적 화자가 한국 사회를 떠나고 싶어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는 것은 ‘대한 사람 대한으로/길이 보전’한다는 가사내용과 일치한다.

갈대

3.3. 대립 구도를 이루는 어휘소

작품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의소를 지닌 어휘소(Lexem)들을 나열해보면, 첫째로 상승의 의미를 지닌 ‘일어나’, ‘새떼들’, ‘날아간다’, ‘날아갔으면’이 있다. 둘째로 한국 사회를 의미하는 ‘애국가’, ‘삼천리 화려 강산’, ‘이 세상’, ‘대한’, ‘자기 자리’가 있다. 가장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두 부류의 어휘소 그룹들은 각각 반대되는 의소를 지닌 어휘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첫 번째 어휘소들과 대립되는 어휘소들은 하강의 의미를 지닌 ‘앉는다’, ‘주저앉는다’이며, 두 번째 어휘소들과 대립되는 어휘소들로는 현실사회와는 다른 집단의 공동체 사회를 의미하는 ‘자기들의 세상’, ‘이 세상 밖’, ‘어디론가’, ‘한 세상’이 있다. 날아서 떠나고 싶어하는 곳이 있고, ‘떼어 떼고’ 갈 그/그녀들만의 세상이 있는데, ‘새떼들’은 날아가 떠나지만 ‘우리’는 그저 부러워할 뿐 ‘주저앉’는 것으로 시는 전개된다.

3.3.1. ‘이 세상’과 ‘이 세상 밖’

시적 화자가 떠나고 싶어하는 세상은 ‘애국가’,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한국사 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가 떠나고 싶어하는 장소는 ‘이 세상’, ‘자기 자리’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 세상’ (혹은 한국 사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 떼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 시가 실린 시집이 발표된 시기가 1983년이라는 점과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가 나오고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배경은 군부 독재 시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이다.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는 ‘우리’들만의 공동체 사회이다. 시적 화자는 ‘나’가 아닌 ‘우리’들로 지칭되며, 새들을 바라볼 때에도 ‘群’, ‘자기들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새들을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라본다. 시적 화자가 군부 독재하의 한국사회를 부정하지만 그 안에 속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혼자만의 도피가 아닌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 시적 화자의 목표이다. 시적 화자는 ‘이 세상’에서 나쁜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들끼리/낄낄대면서/깔쭉대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시의 끝맺음은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 것이다. 공동체의 세계를 지향했지만 사람들은 ‘각각’ 분리되고, ‘우리’가 떠나고자 했던,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사회인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3.3.2. ‘날아간다’와 ‘주저앉는다’

부정적 장소에서 긍정적 장소로의 전환은 상승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2행의 ‘일어나’는 세상을 떠나는 첫 과정이다. 시적 화자는 일어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뜨는 상상을 하고, 그 감정은 ‘새들’에게 이입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새들도 세상을 뜨’고 싶어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새들’은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데 성공하지만 ‘우리’는 ‘날아갔으면’ 하는 소망에 그친다. ‘새들’의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날아가는 소망을 꾸어보지만 허무하게 ‘자기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다. 처음부터 계속 유지되던(1~18행) 상승의 이미지는 마지막 2행에서 급격히 하락의 이미지로 전환된다. 상승의 이미지와 하락의 이미지 사이에 놓인 극심한 격차는 시적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3.4. 소결

황지우는 이 시에서 현실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해 꿈을 꾸다.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나오는 영화 상영 전 애국가와 배경 영상 속에 이상 사회를 그리는 자신의 마음을 투영시키고 있다. 이 시는 이상 사회에 대한 열망의 실현도 다짐도 아닌, 주저앉는 체념으로 끝난다. 체념으로 끝나면서도 비관과 자포자기로만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 성찰의 솔직함 때문이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그만큼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시 속에 담는 것이다. 이 시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과 현실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본 황지우의 시 두 편은 모두 낙관적이고 의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마지막에서 압축적으로,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 시가 갖는 힘은 바로 그 솔직함에 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그 모습을 바꾸겠다는 의지이며, 그 모습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넘쳐나는 의지의 표명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의심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 황지우

의 솔직함은 그가 겪고 있는 고뇌를 그대로 전달해주며 독자들과 공명(共鳴)한다.

두 시의 두 번째 공통점은 소재의 일상성이다. 화장실에서 보는 신문과 영화를 보러가서 듣는 애국가에서도 작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낸다. 그치지 않는 고민은 모든 일상을 평범한 일상으로 존재하게 두지 않는다. 일상조차도 작가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그대로 머물지 말라고 충고한다. 황지우 시의 힘은 바로 이런 일상에서 발견하는, 초라하지만 솔직한 성찰에 있다.

평) 이 글은 황지우의 두 편의 시를 분석한 것으로, 차분하고 꼼꼼한 관찰을 토대로 시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밝혀 주고 있다. 저자는 또한 두 편의 시에 나타난 공통된 특성을 잘 포착하여 하나의 핵심 결론으로 수렴시킨다. 결론이 다소 평이한 느낌은 있지만, 세부적인 분석과 글 전체의 틀이 잘 조화를 이룬 문학 리포트의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석에서 사용된 전문적 용어를 설명하는 각주가 덧붙여진다면 더 좋을 것이다.